

지역 소식통

부안군, 부안댐 지킴이 발대식 · 직무교육 개최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윤상호)는 4월1일 상하수도사업소 2층 회의실에서 '2022년 부안댐 광역상수원지킴이 발대식 및 직무교육'을 가졌다.

발대식에서 부안댐 광역상수원지킴이 13명은 부안군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 수질보전에 온 정성을 쏟을 것을 다짐했다.

상수원 지킴이는 오는 10월 초까지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불법 낚시·어로행위, 축산농가 방문 오염원 적정처리 등 유입 하천의 수질관리를 위한 감시 및 계도 활동과 맑은 물 홍보·정화활동 등을 벌인다.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수원 안정성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한 상수원 수질 오염행위에 대한 감시 감시 정화활동 등을 통해 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군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은 물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장기 미반환 영치 반환금 체납액 징수 총력

정읍시가 자동차와 검사 지연 등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체납 차량 장기 미반환 영치번호판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에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번 체납액 징수는 장기간 차량 방치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도시미관 저해와 주민 불편 등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시에 따르면 2022년 2월 말 기준으로 정읍시가 보유하고 있는 미반환 영치번호판은 238대로 체납액은 6억2,200만원에 이른다.

이 중 1년 이하 번호판이 30대, 1년을 초과한 장기 미반환 영치번호판은 208대다.

시는 이번 일제 정리 기간동안 미반환 영치번호판에 안 내문을 발송해 체납액 징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명품교량으로 지역발전 앞당겨야”

고창군, 노을대교 조기착공 울력선포식



전북 고창군이 지역 최대 역점사업인 노을대교의 조기착공을 바라는 울력선포식을 열었다.

1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해리면 동호항에서 '고창비전다짐의날 노을대교 조기착공울력선포식'을 열었다.

선포석에는 고창군수와 함께 고창군 주민대표로 신연수 고창군 이장단협의회장과 김영창 고창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권영주 고창군 어촌계협의회장을 비롯해 심원면, 해리면 상하

면의 이장단협의회장과 주민자치위원이 함께했다.

주민대표단은 "노을대교가 지역을 대표하는 특색있는 관광자원으로 건설되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며 "노을대교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은 물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이날 선포석에선 '노을대교 건립을 위한 군민 아이디어' 공모 시상도 함께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군민들은 모양성 모양의 화장실 특색있는 교량 난간 조형물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노을대교 건립사업은 고창군의 30년 숙원사업이다. 지난해 천신면교 끝에 제5차 국·도·지 5개년 계획에 반영됐고, 올해는 익산국토관리청이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군수는 "노을대교 국가계획 반영은 시작의 단추를 켜 것으로 시작 단계에서 보여주는 군민의 지력을 보았다"며 "노을대교가 단순히 교통수단의 교량의 역할을 뛰어넘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4월부터 농지법 개정 '농지지원부 전면 개편'

정읍시, 농지대장 전환 위해 7~14일까지 발급업무 중단

정읍시가 오는 15일부터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 관리하는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시는 농지의 공적 정부 역할을 해 온 농지지원부가 농지법 개정에 따라 49년 만에 작성 기준, 관리방식, 명칭 등이 전면 개편된다고 밝혔다.

개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농업인(농가) 단위로 작성했던 농지지원부를 앞으로는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해 개별 농지의 이력을 관리하게 된다.

또 작성 기준도 농업인(세대)에서 농지 필지(지번)로 변경되며, 작성 대

야 한다.

이후 15일부터는 새로운 양식의 농지지원부가 발급되며, 양식변경을 위해 농지 소유자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다.

다만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새행정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을 거쳐 5월 9일 주간에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지원부 전면 개편으로 농지의 관리책임이 명확해지고 정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양식의 농지지원부가 필요한 농가는 4월 6일까지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예산 1조원 시대 개막 발판 마련 최선 당부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1일 군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4월 열린공감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모사업의 발굴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부안발전 위해 예산 1조원 시대 개막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지난 달 실시한 미래를 위한 담대한 향회의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한 연초방문 현장에서 군민



들의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군민을 향한 친절과 미소로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킨 공로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북에서 유일하게 부안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표창하고 앞으로 민원인이 방문 시 친절함 응대와 함께 민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과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상포권역 어촌뉴딜 300사업'의 성공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상포권역 어촌뉴딜 300사업'

고창군-어촌어항공단, 사업 성공위해 맞손

고창군과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상포권역 어촌뉴딜 300사업'의 성공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지난 1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31일) 오후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상포어촌뉴딜 300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창군수, 상포권역 지역주민을 비롯한 한국어촌어항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어촌뉴딜 사업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수립과 실시계획을 담당하게 된다.군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지원하게 된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전국 300여개 어촌·어항을 현대화하여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사업이다.

'상포권역 어촌뉴딜 300사업'은 2024년까지 3년간 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해 어업기반시설 현대화를 통한 어촌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할 계획이다.

고창군 부안면 상포·반월, 흥덕면 후동·후서·시포마을의 2060년 기후환경 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을 고창군이 선도적으로 실현한다.

마을 속인사업인 후포해수탕 리모델링, 노후호안 및 석축보수, 바닷길 진출입로 정비에 고창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전국에 널리 알려 갯벌 생태 관광의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방침이다.

고창군수는 "협약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어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한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로컬잡센터, 농촌 농번기 구인난 해소 지원

고창군 로컬잡센터가 지역농촌의 일손 부족 해결에 발벗고 나선다.

지난 1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고창군로컬잡센터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올해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고창군로컬잡센터는 올해 국비 3억원, 전북도비 0.2억원, 고창군비 2억원 등 총사업비 5.2억원을 확보 하게됐다.

특히 농촌 농번기 구인난 해소와 지역내 구인·구직 발굴·채용연계 등 고창군내 일자리 지원업무를 총괄 운영하게 된다.

핵심은 농가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이다. 농촌 구인난 해소를 위해 인근 도시지역 내 비경제 활동인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농가 일손으로 투입하는 방식이다.

센터는 올해 농가구인처 100건, 농가구직자 500명을 찾아 농번기 농가 채용연계(연간 500건 목표)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관내 구인신청 300건, 구직신청 400명을 찾아내 연 3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앞서 지난 2019년 4월 문을 연 고창군로컬잡(JOB)센터는 매년 70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여 알선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